

Samhwa & People

vol. 29 Spring 2018



CON

vol. 29



S + COLOR

- 047 **COLOR MAGAZINE**
- 048 **2018 SPRING COLOR PACKAGE**
 - 신혼부부를 위한 인테리어
 - 새 학기 자녀를 위한 인테리어
 - 반아웃 직장인을 위한 인테리어
- 054 **낮은아파트의 화려한 변신 모라주공3단지**
- 056 **CULTURECLUB** 전시 공연 이벤트 코너
- 057 **LETTER'S PAGE** 독자 퀴즈 코너



S + SAMHWA

- 004 **NEWS** 삼화페인트 주요 뉴스
- 006 **NEW PRODUCT** 에포코트 난연 라이닝 &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 008 **CSR** Invisible to Visible
 - 창립 72주년 기념 점자팝업북 제작
 - 청주명학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 012 **GLOBAL** 삼화페인트, 러시아에 대한민국 페인트의 우수성을 알리다
- 014 **FRIENDS** 분체도로 시장의 선두주자 효원 P&C
- 018 **CIY CAMPAIGN** 삼화 시그니처 레드로 더욱 활력 넘치는 원주영업소 오피스
- 020 **THE MEAL** 학부모 삼화인들의 Talk Talk
- 024 **EXCITING CHALLENGE** 북서울영업소의 스타일 만점 ATV 도전기



TE

S + INTERIOR

- 028 **OPEN STORY** Minimal Space Only for Me
- 032 **INTERVIEW** 레브드홈 선혜림 대표와 함께 미니멀로 힐링하기
- 036 **S + INTERIOR**
 - Living Room
 - Dining Room
 - Bedroom
 - Home office
- 044 **ONE POINT** Tropical Minimal House
- 046 **DIY** 봄의 컬러를 담은 모듈러 공간박스 수납장 DI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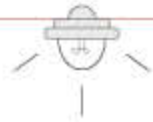
NTS



SAMHWA

[삼화엔피플] 2018년 동조 경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00176 / 발행일 2018년 4월 30일 / 발행인 오진수 / 편집인 김정환 / 발행처 삼화페인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화로 58(모동 125번지) / 문의 02)765-3641 / 기획·디자인 크비즈 02)227 2-1400

* 본 정보간행물은 인쇄용이므로 실제 페인트 컬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컬러는 색전본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립 72주년 기념 '프로야구 스폰서데이' 가져



삼화페인트는 4월 8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와 NC다이노스 경기에서 스폰서데이를 개최했다. '컬러 캐치 데이(Color Catch Day)'의 의미를 부여한 삼화페인트 스폰서데이는 4월 9일 창립 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화페인트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창립 72주년을 뜻하는 등번호 '72번'을 단 오진수 삼화페인트 사장이 기념 시구를, 페인트봇 모양의 야구방망이를 든 건축용팀 이슬기 대리가 시타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경기장 내외부에는 삼화페인트 광고판을 설치해

스폰서데이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프로모션 부스에서는 트램펄린을 이용해 멋진 캐치 장면을 연출한 야구팬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클리닝 타임에는 삼화페인트를 상징하는 컬러볼을 던지는 이벤트를 진행해 잠실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진수 사장은 "직원들과 야구팬들의 컬러풀 라이프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삼화페인트는 72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컬러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화페인트, 임원 인사 단행

삼화페인트 이사회는 2월 1일부로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장연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경영전반 총괄 회장으로, 오진수 대표이사 부사장은 경영전반 총괄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류기봉 공장장이 전무로, 황재호 유통사업본부장, 김종성 공주생산본부장, 배맹달 해외사업본부장, 김중대 사업1본부장, 이창선 사업2본부장이 상무보로 선임됐다. 최대주주 김장연 회장은 1994년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래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기술 중심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전폭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했다. 입사 22년 만에 사장에 오른 오진수 대표는 경영지원본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삼화페인트 조직, 사업, 전략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영혁신에 기여했다.

거푸집 판넬 에지용 코팅 도료 특허 취득

삼화페인트는 '거푸집 판넬 에지용 코팅 도료(Coating Composition for Form Panel Edge)'의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콘크리트 양생에 쓰는 목재 거푸집은 각각의 패널을 도장한 후 조립해서 만드는데, 이때 목재 패널 에지(Edge) 부분에 아크릴 에멀전 도료가 사용된다. 하지만 아크릴 에멀전 도료는 내약품성이 열악해 산과 알칼리에 노출되면 도막이 녹아 콘크리트를 오염시킬 수 있고, 내수성에 취약해 외부에 두면 패널 에지 부위로 빗물이 들어가 거푸집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아크릴 에멀전 도료는 고밀도 안료를 포함하는데, 작업을 위해 물에 희석한 후 오래 놓아두면 침전이 심해 저장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작업 효율이 매우 낮다. 반면, 이번 특허는 실란 모노머 등을 적용해 기존 아크릴 에멀전 도료의 내수성, 발수성, 내알칼리·내산성 및 저장성을 크게 개선, 작업 과정의 효율성과 작업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맑은숨터 조성사업' 참여

삼화페인트는 경기도의 '맑은숨터 조성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의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실내공기가 열악한 시설에 친환경 페인트와 벽지, 장판, 조명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이다. 삼화페인트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경기도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올해로 3년째 동참하고 있다.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친환경 페인트를 생산하는 삼화페인트를 비롯한 25개 기업 및 단체의 대표와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취득

삼화페인트는 '폴리에스테르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Polyester Resin Composition and Method Therefor)'의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고무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갖는 도료를 질감도료라고 하는데, 유연성이 우수한 여러 종류의 수지를 넣어 만든다. 따라서 수지의 유연성이 도료 질감을 결정한다. 질감도료에는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수지와 폴리에스테르 타입 수지가 사용된다.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은 수지 점도가 높아 작업성이 떨어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희석제를 넣게 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이 많아진다. 한편,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탄성과 내후성이 떨어진다. 이번 발명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단점인 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자구조를 적절하게 설계해 폴리에스테르 유연성을 높여 부드러운 고무질감을 나타낸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점도가 낮아 희석제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걱정도 해결했으며 작업성도 우수하다.

에포코트 난연 라이닝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난연 바닥재

연일 뉴스 메인 페이지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화재 사건은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건물의 신축·재도장 현장은 물론, 우리 일상 속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삼화페인트는 이러한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에포코트 난연 라이닝' 바닥재를 출시했다.

삼화페인트의 신제품 '에포코트 난연 라이닝'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난연도료 바닥재이다. 일반 사무실과 실내 주차장은 물론, 식당, 병원, 실험실, 화학공장 등 난연성이 요구되는 모든 공간의 바닥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불이 붙어도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화재를 방지한다.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획된 제품인 만큼, 난연도료시험 'KSF 2271'의

불연성능 기준에도 매우 적합한 제품이다. 무용제형 중상도 경용 에폭시 도료로서, 내구성 및 외관, 자체평활성이 우수한 바닥재이며,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접착력,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이 양호하다. 단순히 건물의 외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 화재의 방지까지 생각하는 기능성 난연 바닥재, 에포코트 난연 라이닝.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에포코트 난연 라이닝이 불려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기대된다.



아이생각 플렉스텍스

크랙방지 기능이 뛰어난 고탄성 마감재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는 건물의 수축·팽창률이 높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멘트 등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물의 수명이 짧아지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삼화페인트는 크랙방지, 준불연성, 내오염성이 뛰어난 고탄성 마감재 '아이생각 플렉스텍스'를 출시했다.

삼화페인트의 신제품 '아이생각 플렉스텍스'는 특수 아크릴 폴리머와 경량 세라믹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건물의 내·외부 마감재이다. 전원주택, 목조주택, 빌딩 및 다세대 주택은 물론,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합판 등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유연성'과 '신축성'이다. 아이생각 플렉스텍스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수축, 팽창 시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하고 보완하며 최대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연도료시험 'KSF 2271'의 가스 유해성 및 열 방출 실험 결과 준불연재료 기준에 만족한 제품으로 내·외부 벽체에 준불연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열성 및 통기성이 우수해 내구성과 오염방지에 적합하다. 아이생각 플렉스텍스는 고온 마감재와 거친 마감재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다양한 연출과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금 박람회 마켓기립팀 과장**



창립 72주년 기념 시각장애아동 위한 '특별한 책 선물'

삼화페인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책 선물에 나섰다. 올해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특수도서는 백제역사유적을 담은 점자팝업북 '백제세계유산'이다. 임직원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점자팝업북은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에 전달돼 시각장애아동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는 4월 19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삼화페인트 연수원에서 오진수 사장과 신입사원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팝업북 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72주년 창립일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된 행사이다. 삼화페인트와 하트-하트재단이 함께하는 시각장애아동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 '인비저블 투 비저블(Invisible to Visible)'의 일환으로도 열렸다. 인비저블 투 비저블은 색과 사물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아동이 교육을 통해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크게 시각장애학교에 특수도서 제작지원과 컬러복지를 도입한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임직원 모두의 정성을 담아 제작한 '백제세계유산' 점자팝업북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도서는 고가의 제작비 문제로 종류가 한정돼 있고 보급도 저조한데, 특히 역사책이 많이 부족하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지난해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 이어 올해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담은 '백제세계유산'을 점자팝업북으로 제작했다. 특히 충남 공주에 생산공장을 둔 삼화페인트는 백제세계유산 기업서포터즈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번 점자팝업북 제작에 의미를 더했다.

오진수 사장은 인사말에서 "삼화페인트는 색채전문기업이자 백제세계유산 기업서포터즈로서 색과 문자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아동도 다른 방법을 통해 백제세계유산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날 삼화페인트 임직원들은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 백제의 소중한 세계유산으로 구성된 점자팝업북을 일일이 손으로 접고 붙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식 재경본부장은 "반세기를 살았지만, 오늘처럼 의미 깊었던 하루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백제세계유산 점자팝업북이 시각장애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연구혁신그룹 강성호 연구원은 "눈으로 보면서 책을 만들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아동들은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입사한 산업도로연구그룹 이승용 연구원 또한 "시각장애아동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던



66 앞으로도
시각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99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든 점자팝업북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삼화페인트 임직원이 정성껏 만든 백제세계유산 점자팝업북 300권은 전국 시각장애학교와 점자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제세계유산 점자팝업북과 함께 더욱 새로운 세상, 희망찬 미래와 만나게 될 시각장애아동들을 응원하며, 삼화페인트는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S



Invisible to Visible I



SAMHWA

CS2

금
순선아
컬러디자인센터
과장
사진
김선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시각장애아동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 '인비저블 투 비저블'의 일환으로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구광명학교 컬러 계획 및 도색 지원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 '청주맹학교 도서관'을 새롭게 바꾸었다.



즐거움이 있는 우리학교 도서관

청주맹학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Invisible to Visible II

1953년 미국의 허마리아 선교사가 설립한 청주맹학교는 시각장애를 가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등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눈이 아닌 상상력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 수업', 마음으로 호흡을 맞추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밴드 '브라스 앙상블' 등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청주맹학교에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의 벽과 시설 환경이 학생들의 시각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대부분의 공간이 형광연두색만으로 도장되어 있어 학생들이 벽과 기둥, 창턱 등을 인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맹학교 도서관에 '인비저블 투 비저블' 사업의 일환인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청주맹학교 학생들을 위한 Joyful한 공간

컬러디자인센터는 올 1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청주맹학교 도서관에 도색 지원을 했다.

우선,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스스럼없이 즐겁게 소통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Joyful'이란



66 예전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색이 달라지니
공간을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어 좋았어요 99



컨셉트를 선정했다. 그리고 학교의 특징과 특수성에 가장 알맞은 컬러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맹학교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개인별 장애의 유형, 정도 등에서 차이가 많아 모든 연령은 물론, 저시력과 중복장애아동에게 알맞은 컬러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컬러디자인센터는 도서관을 친근하고 Joyful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니 토파즈(Honey Topaz), 서니 힐스(Sunny Hills), 스카치 버터(Scotch Butter), 리치 골드(Rich Gold), 뱀부 리프(Bamboo Leaf) 등 총 5개의 주요 컬러를 활용해 공간을 페인팅했다. 특히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도서관의 벽과 기둥, 창턱 등을 다르게 페인팅해서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태어난 도서관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즐거운 목소리로 "새롭다", "신선하다",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특히 한 학생은 "예전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색이 달라지니 공간을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환히 웃는 모습을 보였다.

컬러디자인센터는 청주맹학교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선물했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아동이 시야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컬러로 모두가 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색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인비저블 투 비저블'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된다. S



- 
 SCOTCH BUTTER
SH S 0510-Y
- 
 HONEY TOPAZ
SH S 1070-Y10R
- 
 SUNNY HILLS
SH S 2050-Y50R
- 
 RICH GOLD
SH S 2050-Y
- 
 BAMBOO LEAF
SH S 3050-G70Y



삼화페인트, 러시아에 대한민국 페인트의 우수성을 알리다

삼화페인트는 2018년을 맞아 글로벌 시장 공략,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화페인트의 노력과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첫 소식으로 러시아 페인트 시장 속 삼화페인트를 알아본다.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광활한 대륙 '러시아'.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자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최근 경제성장률과 도시개발을 이어가며 건설용·건축용 페인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낡은 건물을 재도장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등 적극적인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 높은 시장 러시아. 삼화페인트는 러시아에 삼화페인트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99년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 설립된 스트로이스메스 공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시장 개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바롭스크 스트로이스메스 공장과의 파트너십

스트로이스메스 공장은 2016년부터 삼화페인트의 한국산 수지를 활용해 각종 수성도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시장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화 페인트와 스트로이스메스 공장이 협력해 처음 출시한 제품은 건축용 건조 혼합물 'Joh-Eun 프라이머 18L'이다. 특히 삼화페인트의 우수한 수지는 'Joh-Eun 프라이머'가 러시아 페인트 시장에서 높은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삼화페인트와 스트로이스메스 공장은 'Joh-Eun 프라이머' 출시 후 삼화페인트 수지를 이용한 항공 프라이머 'ALC-Primer'와 'P-Primer Concentration' 또한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개발된 친환경 비닐 용기에 담겨 출시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처음 시도된 케이스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2018년에는 한국의 엄격한 제품 기준에 부합하는 삼화페인트 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Joh-Eun Paints'를 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삼화페인트 수지를 이용한 각종 도료의 생산 및 판매 증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



Stroysmes

Завод Стройсмес (г.Хабаровск,Россия) основан в 1999году.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вода Стройсмес является выпуск сух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смесей.

Начиная с 2016 года Завод Стройсмес организовал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ных лакокрасо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России, используя основные компоненты компании SAMHWA PAINTS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вым выпущенным продуктом стал праймер «Joh-Eun» 18L. Качеств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давно извест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этому разработка упаковки нового продукта и адаптация состава для российских условий потребовали больших усилий. Особенно качественные компоненты компании SAMHWA PAINTS позволяют праймеру «Joh-Eun» достичь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ачества.

По прошествии шести месяцев с начала выпуска праймера «Joh-Eun», в списке продукции, выпускаемо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онентов, поставляемых компании SAMHWA PAINTS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оявились противогрибковый ALC- Primer и концентрат P-Primer,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выпущенные в новой экологичной и технологичной упаковке, разработанной специалист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В 2018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ыпуск красок под торговой маркой «Joh-Eun Paints», созд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онентов компании SAMHWA PAINTS, с соблюдением строгих норм и требований Южной Кореи. Эти действия несомненно приведут к расширению объема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родаж различных красок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онентов компании SAMHWA PAINTS.

올봄 새롭게 이사했어요

분체도료 시장의 선두주자

호 · 원 · P · & · C

지난 4월, 전국에 찾아온 꽃샘추위가 무색하도록, 훈풍으로 가득 찬 도시 대구 달성군을 찾았다. 삼화페인트의 파트너, '효원 P&C'가 대리점을 이전해 새롭게 오픈했기 때문. 아직 곳곳에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이 남아있지만 단단한 골격을 갖춰나가는 효원 P&C를 지켜보는 아버지 원상철 사장과 아들 원택일 대표의 표정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 둔 특유의 설렘과 흥분이 엿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효원 P&C가 이전해온 달성군은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급성장하는 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다, 새롭게 마련한 대리점은 지나가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큼 깔끔하고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 1층만 250평 규모에, 2층으로 구성돼 있다. 요즘 지인들을 만날 때면, 부러운 얼굴로 소감을 물어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두 부자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새 건물이니 쾌적하고 정말 좋다"며, "그 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분체도료 시장의 선두주자

대구 효원 P&C는 우리나라 분체도료 시장을 이끈 선두주자 중 한 곳이다. 분체도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지금보다 더 낮았던

올봄, 삼화페인트의 오랜 파트너 '효원 P&C'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삼화페인트의 수많은 도료 중에서도 '공업용 분체도료'를 내세워 시장 개척에 앞장서온 효원 P&C. 이제 그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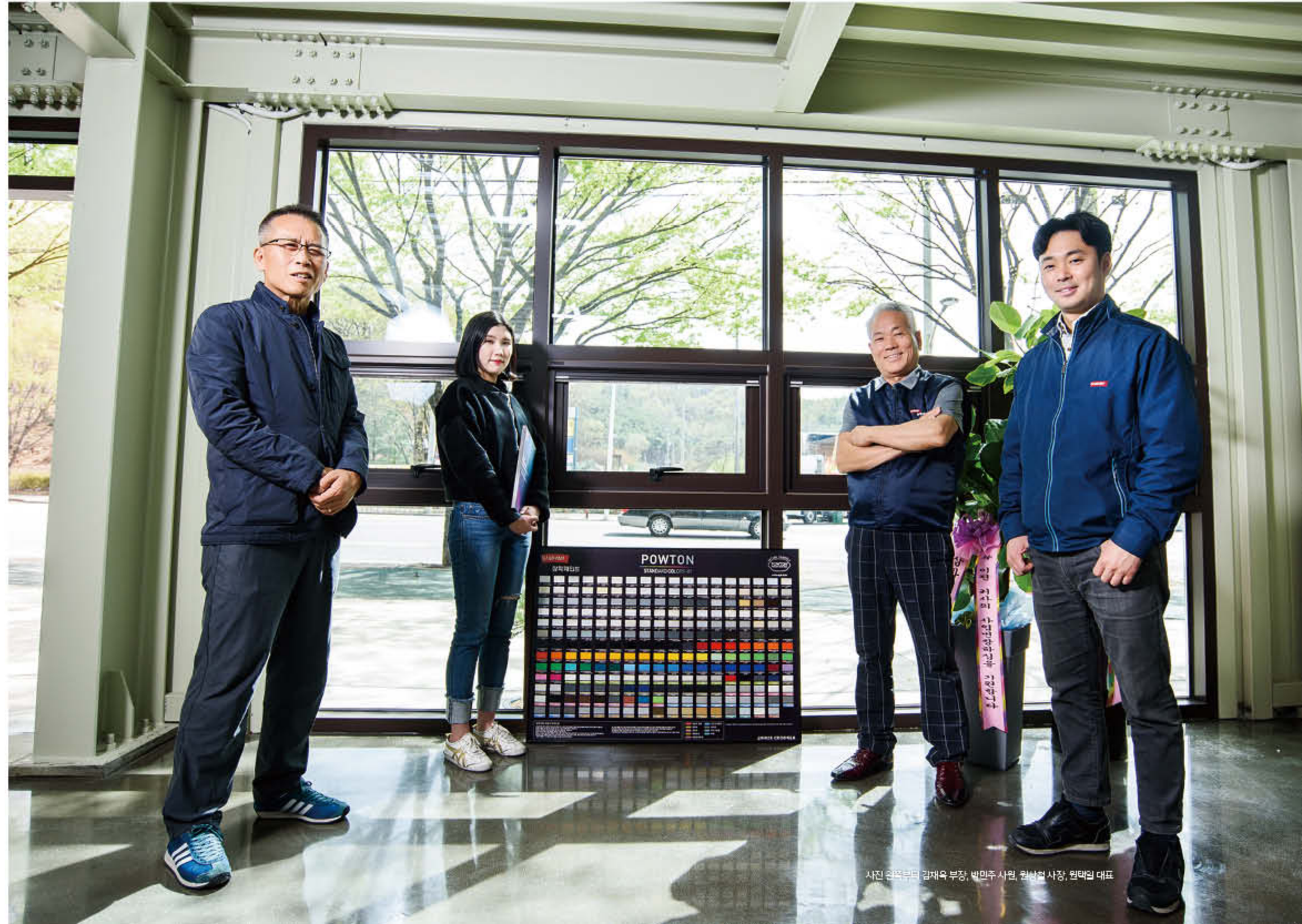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김재욱 부장, 박민주 사원, 원상철 사장, 원택일 대표



1990년대, 원상철 사장은 대한민국 산업계의 꾸준한 성장을 눈여겨 보고 분체도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IMF로 인해 페인트 시장 전체에 불황이닥쳐온 것. 이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그는 우리나라 페인트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 삼화페인트가 분체도로 시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삼화페인트와 함께라면 다시 한 번 분체도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삼화페인트와 인연을 맺었고,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날 효원 P&C는 삼화페인트와 함께 매출 38억 대를 달성한 공업용 분체 도로

대리점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다. 주요 클라이언트 또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등 다양하다. 원상철 사장은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삼화페인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불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품질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7~8년이 흐르니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더군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원택일 대표 또한 "대구의 작은 분체도로 대리점었던 효원 P&C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삼화페인트가 오늘날 다양한 컬러와 품질 높은 페인트를 갖춘 국가대표 기업으로 명성을 알리게

된 것은 상호가 함께 협력하며 성장해왔기 때문인 것 같다"며 삼화페인트와의 인연을 높게 평가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종합 페인트 대리점이 목표

올 봄 효원 P&C는 대구 달성군의 새로운 대리점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갈 뜻을 밝혔다. 중국에서 경제무역을 전공한 아들 원택일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전담하며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효원 P&C가 자리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지역으로, 여러 신도시 개발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7년 1월에는 인구통계에서 울주군을 제치고 군 지역 인구 1위에 올라섰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며 아파트 건축 시장 또한 활기를 띠며 따라, 효원 P&C는 기존의 분체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액상도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고객에게 다가갈 방침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효원 P&C는 페인트의 모든 것을 다루는 페인트 토탈 대리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삼화페인트 제품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인데요. 매출 50억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아버지 원상철 사장과 아들 원택일 대표는 누가 보아도 사이 좋은 부자 시간이다. 하지만 성격상의 장점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영업력과 추진력이 원상철 사장의 장점이라면, 아들 원택일 대표는 꼼꼼하고 치밀한 운영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함께하면 시너지가 더욱 업그레이드된다는 두 부자가 최고로 꼽는 페인트, 삼화페인트. 삼화페인트와 두 부자가 함께 만들어갈 효원 P&C의 미래가 기대된다. S

PICK

원상철 사장이 추천하는 제품 _ 파우톤

삼화페인트의 분체도로 '파우톤(POWTON)'은 최고의 기술력과 최신키 자동화 설비,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다. 파우톤은 일반도로와 달리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100% 고체성분의 환경 친화형 분말 형태로 정전기를 이용해 도장하는 도로로, 지금까지 일반 도로로 표현할 수 없었던, 크랙, 얼티론, 스트러처 등의 특수 무늬를 내거나, 부드러운 촉감을 갖는 가죽 질감을 나타내는 등 표현력이 우수하다. 오늘날 주로 가전 제품,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전기 제품, 철재 가구, 공구류, 각종 산업기기 및 농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삼화 시그니처 레드로 더욱 활력 넘치는 공간

원주영업소 오피스

올봄, 삼화페인트가 준비한 'CIY 캠페인'이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첫 주인공은 지난해 8월 사무실을 이전한 원주영업소. 사무실의 하얀 벽면을 원주영업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밝고 힘찬 컬러로 꾸며달라는 의리를 받아 삼화 시그니처 레드(Samhwa Signature Red)로 인테리어를 꾸몄다.



원주영업소의 'New Office'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흰 벽면. 하얗고 깔끔하기는 하지만, 새 보금자리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원주영업소 사주들에게는 다소 심심하고 밋밋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컬러디자인센터와 원주영업소는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 조성을 위해 넘치는 정열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기술을 상징하는 삼화 시그니처 레드로 포인트 벽 페인팅에 도전했다.

벽과 벽, 벽과 바닥, 콘센트 주변 등을 마스킹 테이프로 꼼꼼히 보양 작업을 해주고, 양 사이드부터 중앙을 향해 쓱쓱 페인팅 Start! 키가 닿지 않는 상단 부분은 긴 롤러를 이용하고, 구석이나 모서리 등 롤러가 닿기 어려운 부분은 붓을 이용해 꼼꼼히 페인팅해준다. 완전히 다른 벽면 위에 삼화 시그니처 레드의 컬러 콘셉트와 컬러칩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

삼화 시그니처 레드로 에너지 UP

다소 밋밋했던 화이트 벽면이 삼화 시그니처 레드 컬러를 통해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밝고 열정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시그니처 레드는 밋밋한 공간에 밝고 회사하면서도 강렬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평범한 사무실도 인테리어 쇼룸처럼 열정과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준다. 특히 주목도 높은 벽면에 사용하면 시원함과 강렬함의 밸런스가 공간 전체에 강한 상쾌함과 청량감을 전해주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윤종민 원주영업소장은 "삼화 시그니처 레드를 한쪽 벽에 칠한 것만으로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UP' 되었다"며 "밝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희경 사원 또한 "밝고 화사한, 강렬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컬러의 기운을 받아 사무 모두가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소지었다.

심심하고 밋밋했던 화이트 벽의 새로운 변신, 삼화 시그니처 레드로 도전해보면 어떨까? S

CIY CAMPAIGN 오픈 - 삼화페인트와 함께 꿈꿔왔던 페인팅에 도전하세요!

삼화페인트의 'CIY(Color it Yourself) CAMPAIGN'은 우리 회사의 부서, 영업소와 대리점 등을 방문해 페인트를 통한 인테리어 변신을 도와주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컬러는 우리의 생활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컬러를 어떤 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직장 내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는 부서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컬러 페인팅으로 활기찬 2018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컬러디자인센터 이미지 대리(speople@samhwa.com)



좌측부터 마케팅팀 박철희 과장, 리더디자인팀 송선아 과장,
사업관리팀 한광수 차장, 경영기획팀 정연상 팀장, 후유팀 권영선 과장

우리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Mission Clear!

학부모 삼화인들의 Talk Talk



삼화페인트가 삼화인들의 소통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바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삼화인 테마 토크 코너. 첫 순서로는 봄을 맞아 취학 시기를 맞이한 학부모 삼화인들을 초대했다.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냈다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의 관심사는 바로 자녀의 학교 적응 그리고 교육.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익선동 레스토랑 '얼두달'에서 건강한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며 이루어진 삼화페인트 워킹 데디 & 맘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공감 토크.

올해 3월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셨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초등학교 입학 관련 꿀팁이 있다면?

한광수 무엇보다 아이와 초등학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어린이집과는 많은 점이 다르다고 저나 아내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궁금증을 들어주고, 각 경우마다 어찌하면 되는지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말이죠.

송선아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작은 팀을 드린다면, 공책을 무리해서 많이 사지 마세요. 하음이는 알림장과 무지노트, 10권짜리 공책 딱 3권만 사용한답니다.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권영선 부모들의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했니?"라고 단순하게 묻는 것인데요. 아이에게 학교생활을 물어보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일과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도형아, 아빠는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전화도 받고 일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런저런 일을 했어. 너는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니?"라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시간의 순서대로 자신의 일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박철희 과장의 아들 박태범
태범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만들기와 조립(벽포머스, 레고 등)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뿐만 나면 동생과 닮지만,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아빠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연상 부장의 딸 정시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시운이입니다. 올 초 말아들을 대학교에 보냈는데, 요번엔 '딸 내미'의 입학홍지서가 날아왔네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딸을 키우며 한창 자식 키우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광수 차장의 아들 한시우
2011년 2.8kg의 작은 아이로 태어난 시우. 아직 학교에서는 먼 앞자리에 앉지만, 걸기 시작할 때부터 공놀이를 좋아하는 쾌활한 아이입니다. 조금만 더 크면, 아빠랑 축구, 농구 시합할 날이 올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입학식에 참석하셨나요? 재미있는 &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한광수 3월 2일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집이 처가 근처라 장모님과 처형, 처조카 등 많은 가족이 와주었는데요.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의 입학식 옷을 6학년 선배들이 입혀주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아이들이지만 단체로 옷을 입고 있으니, 정말 단체생활을 하게 되었음이 실감났어요.

박철희 유치원을 오가며 인사했던 분들, 아이들과 자주 갔던 아파트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종종 만났던 분들이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은 반 학부모들이 서로 열심히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권영선 도형이의 입학식에 함께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보다 반인원이 훨씬 적어서 놀랐죠. 저희 때는 50~60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이네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 일상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연상 가족의 취침 시간이 9시로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자기 전 시운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놓칠 수 없는 보람인데요. 약속이 많아서 주로 아내가 해주고 있지만,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희 태범이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별도로 방을 만들어주었어요. 그 덕분인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어서 집으로 잘 돌아오고, 스스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사이 많이 자랐구나 싶습니다.

송선아 책임감이 강해지고 소속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면에서 부담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맨날 노는 동생이 부러운지 가끔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라시나요?

정연상 건강하고 밝고 지금처럼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한광수 시우는 성격이 매우 쾌활하고 활동적이에요.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자기 것만 아는 성격도 아니고요. 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진 않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평범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박철희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와 우애를 나누고, 남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바른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선아 복잡한 세상이지만 상처 없이, 티 없이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되니 자존감 높고 자기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선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하게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열정과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다 배울 게 있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부모도 성장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체험할 때가 있다면?

한광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중심이었던 것이 아내, 아이 중심으로 변하게 된 것 말이지요.

박철희 아이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고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왜 엄마아빠 마음대로 결정하냐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더군요.

송선아 부모는 아이 앞에서 절대 울면 안 된다고 하죠. 속상해도 화가 나도 회사에서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마음을 항상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에 최선을 다하는 삼화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한광수 일과 가정 모두 100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나 가정 모두 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대한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까요?

박철희 공부와 학습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아이의 감성과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잘 놀아줄 수 있는 학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선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솔직히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들. 정말 좋은 의미더군요. 워라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가정과 일은 양립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삼화인 모두가 가정과 일의 조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워라벨을 응원합니다. S



송선아 과장의 딸 김하음
집팬지를 연구하여 동물학자가 된 '제인 구달'처럼 큰 인물이 되고 싶다는 사랑이 많은 아이 하음이입니다. 이외에도 장래희망이 32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사랑하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입니다.



권영선 과장의 아들 권도형
도형이는 성장기 때 받는 영유아 정기 검진에서 상위 99%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답니다. 무엇으로요? 등무게로요. 하하 어쨌든 말라서 걱정하는 것보다야 건강한 것이 훨씬 좋지요. 강호동처럼 튼튼한 아들, 아빠가 많이 사랑해~♡





봄 기운을 물씬 풍기는 바람, 그 속을 울리는 우렁찬 엔진 소리. 앞으로 다가올 스릴과 즐거움을 예고하는 빈가운 것들. 삼화페인트 북서울영업소가 새봄을 맞아 ATV에 도전했다. 삼화페인트의 노력과 행동대장 북서울영업소와 뛰어난 기동력의 상징 ATV의 만남은 그 자체로 설레고 즐겁다.

북서울영업소의 스릴 만점 ATV 도전기

정상을 향해 가즈아~!



봄을 맞은 북서울영업소 사우들의 얼굴에 생기와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북서울영업소는 올해 1, 2월 안호상 소장을 필두로 목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 여기에 열정적인 뉴페이스까지 합류해 분위기는 더욱 업된 상태. 북서울영업소는 이 기세를 몰아 한층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이번 익사이팅 클래스 ATV(All-Terrain Vehicle)에 도전했다.



무서우냐고요? 오히려 신이 납니다!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 자리한 ATV 체험장. 1.5m 내외의 작은 몸체에 네 개의 커다란 바퀴가 매력인 ATV는 거친 산악지형과 길이 없는 오프로드(Off Road) 등 어떤 지형에서도 강력한 기동력을 자랑하기로 유명하다. 이날 온영진 강사의 리드 아래 사우들이 체험할 코스는 기초연습을 시작으로 도로를 달려 산으로 입성, 산을 넘어 반대편의 종점을 찍고 돌아오는 코스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사우들은 가볍게 ATV에 올라, 서서히 운동장을 돌며 몸을 풀었다. 이번에 처음 ATV를 타본다는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처음 타보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물음에 오히려 자신감에 찬 목소리들이 응답했다. "걱정은 No! 다 할 수 있어요!(안호상 소장)", "연습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진광화 차장)", "다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1등

ATV 체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안호상_북서울영업소 소장

2018년 북서울영업소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ATV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봄이 오는 풍경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던 대력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속도를 즐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준 영업소 식구들의 모습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서울영업소! 2018년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보자~



진광화_북서울영업소 차장

처음 연습할 때에는 조심조심 달리던 팀원들이 복귀 시점에서는 폭주족 모드(?)로 변신하여 마구 질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하나되어 사고 없이 무사히 완주했다는 성취감이 정말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처럼, 영업소 식구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상업_북서울영업소 과장

팀 전체가 속도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단합이란 힘을 느낄 수 있어서 흐뭇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서로 응원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우리 영업소의 장점이 이번 체험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던 느낌입니다. 모두 함께 완주를 해냈다는 쾌감과 성취감도 정말 컸습니다. 앞으로도 푸욱 북서울영업소 파이팅입니다!



이시현_북서울영업소 대리

북서울영업소의 미모담당 이시현입니다. 이번 체험, 정말 즐겁고 보람찼어요. 평지는 생생 쉽게 달렸지만, 돌과 바위가 많은 험한 길은 뒤에서 밀어주고 배려해주는 팀원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정말 행복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두영_북서울영업소 대리

처음부터 마지막에 ATV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연 속 산악지형을 자유롭게 달리는 상쾌함이 정말 좋았고, 생각보다 어려운 코스를 모두 함께 완주하여 뿌듯한 마음입니다. 부서를 이등하여 처음 왔을 때부터 환대해주신 북서울영업소 식구들 감사합니다. 2018년 북서울영업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이형주_북서울영업소 사원

신입사원으로서 이번 ATV 체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자연 속 오프로드를 달리며 탁 트인 자연을 즐길 수 있어서,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길을 넘어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북서울영업소의 끈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citing Challenge에 도전하세요!

우리 회사 부서-동호회 사무들과 함께 체험하고 싶은 원데이 클래스가 있나요? 지금 바로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원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사연을 <speople@samhwa.com>로 보내주세요.
참여 연월 신청 부서-동호회 사무 4~6명



하겠습니다(이시현 대리)"

어려운 길은 모두 함께 단합해서, 으쌰~!

이번 체험 전날 입사한 막내, 이형주 신입사원을 선두로 본격적인 주행이 시작됐다. 운동장을 벗어나 평탄한 도로에 접어들자 점점 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ATV.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달리자, 이내 누가 먼저 시작인지 모를 환호성이 저절로 터졌다. "이얏호", "진짜 재미있어", "할만한데" 순조롭게 달려나간 ATV는 곧 이어 나타난 산길 입구도 능숙하게 올라섰다.

"엄매 째짝이야", "으앗, 여긴 좀 무서운데!", "천천히 가자, 모두들 조심해요" 생생한 바람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속도가 ATV의 첫 매력이라면, 거친 산악지형 속 온몸을 덜컹덜컹 뒤흔드는 아찔함이 ATV의 또 다른 매력이다. 작은 용덩이나 둔덕 등을 손쉽게 건너고 나니, 각종 크고 작은 바위들로 요철이 심하고 험준한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난이도 높은 코스지만, 웬만한 곳은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ATV를 믿고 전원 도전. 작은 경사에도 온몸이 흔들렸지만, 핸들을 고정하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잡느라 팔과

머리가 바빠졌지만, 한 구간 한 구간을 넘어설 때마다 찾아오는 스릴감이 온몸에 활력을 전했다. 열심히 전진하면서도 중간 중간 서로가 잘 가고 있는지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이날 북서울영업소 사우 모두는 돌아올 때도 처음처럼 ATV의 속도를 신나게 만끽하며 돌아왔다. 처음의 설렘과 기대에서 모든 코스를 함께 완주했다는 흥분과 성취감으로 업그레이드된 열띤 분위기. "우와, 이제 왜 다들 경주용 바이크를 찾는지 알겠어요. 속도와 스릴감이 엄청나네요(장두영 대리)", "정말, 이래서 레이싱, 레이싱 하는구나. 나도 하나 살까봐(이시현 대리)", 넌지시 "언제 사실 건가요?"라고 물으니 "당장 내일이요!"라는 유쾌한 대답이 돌아온다.

2018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북서울영업소의 해로 만들어, 모두 함께 다시 한 번 ATV를 타러 오고 싶다는 북서울영업소의 사무들.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삼화메인트의 밝은 미래가 엿보였다. \$

Simple

Concentrated

Relaxed

Clean

Concise

Spring Healing Minimal Space Only for Me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공허감을 물건으로 잊으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와 가족에게 집중하며 힐링하는 삶으로 변화를 꿈꾼다면 '미니멀 인테리어'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좋아하는 물건으로만 채운 심플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매일을 평온하고 즐겁게, 소중한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O p e n

비움 뒤 행복을 채우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한 미니멀라이프

MINIMAL LIFE

우리는 온갖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졌을까? 집 안 가득 물건을 채워도 허전함과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보자. 여유로워진 공간에는 일상의 넉넉함과 소소한 행복들이 가득할 것이다.



S t o r y



문화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은 미니멀라이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는 사물의 본질을 중심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문화 사조인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영향을 받아 2010년대 즈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비우는 삶'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주로 종교적, 철학적인 이유로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비우는 삶'이 '미니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과 같은 바람을 일으킨 것은 2010년 미국의 웹사이트 '더 미니멀리스트(www.theminimalists.com)'에 사람들의 이목이 몰리면서부터이다. 그들은 "좋은 차에, 넓은 집, 명품을 소유했지만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철학적 반성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계기로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뜻의 '단사리(斷捨離)'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미니멀라이프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영미권이나 일본의 경우 모두 어떤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미니멀라이프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웰빙, 로하스, 키포크에 이어 미니멀라이프로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니멀라이프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지향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줄이는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의류, 생활용품 같은 일상적 제품에서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 심지어 가전제품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더하기보다 빼기, 미니멀 인테리어

SK플래닛의 소셜분석 시스템 빈즈(BINS)를 통해 본 미니멀 라이프의 소비 분야 상위 연관 키워드는 '디자인(2만3665회)', '컨셉트(6386회)', '공간(3902회)' 순으로 나타났고, 감성 및 표현어 관련 키워드로는 '좋다(6914회)', '돋보이다(3956회)', '아름답다(3170회)'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미니멀 디자인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니멀라이프의 흐름은 최근 인테리어의 경향에서도 드러난다. 점점 단순화되고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미니멀 인테리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

미니멀 인테리어는 단순히 스타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의 모습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해주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냄으로써, 진정한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구나 소품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단지 집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에서 가지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버리고, 삶의 무게도 같이 없애는 것이다. 정리하기 좋은 봄날, 미니멀 인테리어로 나와 가족에게 소중한 공간을 꾸며보자. 행복한 삶에 대한 해답을 그 공간에서 찾게 될 것이다. S





renewed home

레브드홈 선혜림 대표와 함께 산뜻한 봄, 미니멀로 힐링하기

자신만의 미니멀라이프를 찾고 인테리어까지 그 영역을
넓힌 레브드홈 선혜림 대표와 함께, 온전히 나 자신이
주인일 수 있는 감성 미니멀 홈스타일링을 시작해보자.

미니멀라이프는 제대로 비우면 오히려 채워지는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비우면 무엇이 채워진다는 것일까. 홈스타일링그룹 '레브드홈(blog.naver.com/revedehome)'에 답이 있다. 그 답을 찾으려 150만 명이 다녀갔고, 1만 8,000명 이상이 기꺼이 이웃이 됐다. 레브드홈의 선혜림 대표는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 공간을 비우면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 공간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집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가 미니멀라이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 결혼하고 첫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모조리 사들이며 한동안 집 꾸미기에 빠져 지냈다는 그. 그런데 어떤

일인지 꾸밀수록 불편하고 급기야 집 자체가 스트레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되근해 돌아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물건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주인공인 집, 효율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집'을 꿈꿨다. 간소하되 예쁜 집, 이것이 그만의 예쁘게 비우는 미니멀의 시작이었다. 그의 미니멀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무조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울리는 삶의 스타일을 찾고 꼭 필요한 물건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그 과정은 블로그 레브드홈에 담겼고, <처음 시작하는 미니멀라이프>라는 책에 실렸다. 스스로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며 이리저리 좌충우돌 끝에 깨달은 그만의 노하우를 들여보자.



Q. 대표님이 추구하는 미니멀라이프가 궁금합니다.

미니멀라이프는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금욕과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것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삶의 여유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Q. 미니멀라이프를 시작하기 전과 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는 미니멀라이프를 시작하기 전과 후, 삶의 방식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리적 공간의 여유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됐어요. 청소하는 시간이 줄고 필요한 물건이 항상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찾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졌죠.

물건을 고르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고요. 삶의 여유를 되찾으니 부부 간 싸움이 줄고 대화가 늘었어요. 만약 가족 간 관계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미니멀라이프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Q. 어떤 일یدن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니멀라이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집에 있는 물건과 그 개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으로 다시 분류하고 버리거나 처분해야죠. 사실,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물건을 분류하고 버리기까지 1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직장인이거나 주말에 한두 시간을 정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건과 이별하기 어렵다면 비움노트를 활용하길 권합니다. 비움노트를 통해 이별할 물건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따라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 없는 게 많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Q.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타일링 개념을 더한 미니멀 인테리어는 어떤 것인가요?

미니멀라이프가 자신만의 최소한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듯이, 미니멀 인테리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공간을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꾸미는 것이예요. 특히 최소한의 색상으로 최소한의 시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간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컬러이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 문과 관련된 시공만 진행해도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가령 페인팅이나 인테리어필름 등으로 문의 컬러를 바꾼 다음 데코용 소품으로 한층 더 세련된 스타일링을 연출하면 됩니다. 물론, 데코용 소품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죠. 저는 액자나 조명, 시계, 쿠션커버, 슬리퍼 등을 추천합니다.

Q. 미니멀 홈스타일링 소재로써 페인트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인트는 이국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색채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큼니다. 벽면이나 벽지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작업과정도 간편해졌고요. 저는 여전에 신혼집을 꾸밀 때 셀프 페인팅을 시작하면서 삼화페인트를 사용했어요. 삼화페인트는 언제 어디서든 구하기 쉽고, 색이 아름다우며 용도에 따라 용량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친환경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산뜻한 봄날, 거실이나 침실 등 공간별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미니멀 홈스타일링 포인트를 추천해주세요.

손쉽게 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세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우선 플라워 데코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구 위를 정리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을 두는 거죠. 들패는 패브릭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가령 침실이나 거실소파에 두는 쿠션의 커버를 바꾸거나 커튼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팅으로 컬러를 바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인트 벽면을 정해 봄에 어울리는 옐로우나 그린 컬러로 페인팅해보면 어떨까요? 과감한 색이 부담스럽다면 베이지톤으로 페인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페인팅 포인트는 침실이라면 침대 헤드 위, 거실이라면 소파 뒤가 좋습니다. 아이방의 경우에는 핑크와 그레이 등의 투톤으로 페인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Q. 미니멀 홈스타일링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컬러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니멀 홈스타일링은 다양한 색으로 개성 넘치는 공간을 연출

하기보다 컬러를 절제하되 어떤 비율로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보통 화이트, 그레이, 블랙, 우드의 4가지 색상을 추천합니다. 화이트에 우드, 화이트에 그레이, 화이트에 블랙, 화이트에 그레이와 우드 등으로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이 색들만 채울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선호하는 색을 중심으로 톤이나 채도를 변화하면 얼마든지 미니멀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다만 각 색의 사용 비율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블루 컬러만 해도 명도나 채도 비율에 따라 밝거나 어둡고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나죠. 때문에 컬러와 그 비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주조색과 보조색의 비율을 50:30:10:10으로 하길 추천합니다. 밝고 포근한 집을 원한다면 주조색을 보조색보다 밝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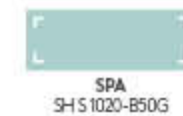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미니멀라이프나 미니멀 홈스타일링을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해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은 있으니까 그것부터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책장일 수도 있고, 화장대일 수도 있죠. 작은 것이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함께 있는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미니멀은 삶을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Living Room

집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 거실의 미니멀리즘은 여백의 미를 극대화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산뜻함이 느껴지는 화이트, 시야가 확보되는 스파클링 블루와 그린,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그레이까지. 컬러의 무드와 에너지가 한층 더 돋보이는 공간에는 따스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시각적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자리 잡았다.



Dining Room

각종 식기와 조리도구 등으로 어수선했던 다이닝. 그러나 동시에 다이닝은 각종 고민과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미니멀한 공간이어야 한다. 화이트와 스카이 블루, 옐로우,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등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조합으로 포인트 벽으로 완성된 미니멀 다이닝은 공간 곳곳에 여유와 즐거움을 불어넣는다.





CLOUDY GREEN
SH S 2005-B90G

PASTEL PINK
SH S 0520-R20B



©dodot

Bedroom

집 안 모든 공간 중 가장 편히 쉴 수 있고, 깊게 잠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침실. 사랑스러운 핑크와 밝고 회사한 민트를 소품들과 감각적으로 매칭하면 침실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무드와 에너지를 조성해준다. 조잡하고 불필요한 장식과 가구를 덜어낸 공간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숨 쉴 수 있는 포근함과 아늑함을 누리게 한다.



TROPIC SEALIGHT
SH S 1030-B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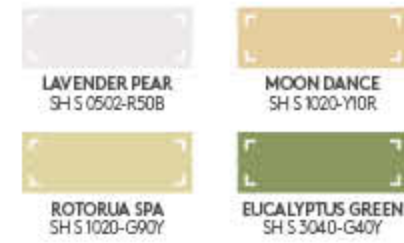
OCEAN AIR
SH S 1005-B

CLEAN WHITE
SH S 0502-G

©YELLOW PLASTIC DESIGN

Home Office

홈오피스의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일까? 적절한 긴장감과 절제력이 살아 있는 '집 같지 않은 집'이 아닐까.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옐로우, 차분하고 이지적인 힘이 있는 그레이 등의 컬러를 입은,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게 구성된 홈오피스는 머릿속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비워버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깔끔한 마음과 절제된 미학의 진가를 선보인다.



Tropical Minimal House

산뜻한 봄. 트로피컬 무드를 표현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은 추상화처럼 단순하고 세련된 패턴과 빈티지한 컬러, 오브제를 활용해 낭만적으로 꾸미는 것이다.



1 조형적인 월 데코레이션 자켓 2 블랙 스탠드 램프 더 매뉴얼러 3 아자나루 테이블 4 워킹 디테일의 이지 차어 쿠션 키타바니포니 5 플라밍고 바란개리 아자수프의 7 브라스 소재로 만든 원형 테이블 쿠밍 용 아쿠아 블루 플레이트 조인수아트앤라이프스타일 9 스페인 아우도어 가구 브랜드 POINT의 스톤 테이블 쿠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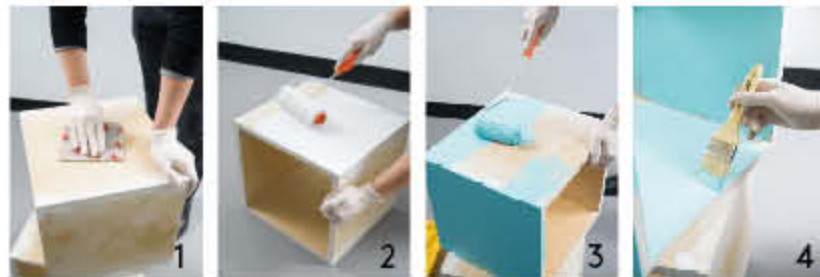


1 카키색의 선풍기 보네이도 2 그린 상판 테이블, 유리 소재 투명 보관함, 핑크 보관함은 모두 조인수아트앤라이프스타일 3 큰 부리를 가진 새가 들어 있는 장식 볼 아베크나인 4 길게 뻗어 내려오는 스틸 소재 다리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의자 스페이스로직 5 공간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라탄 소재 스톤과 라운지체어 모두 덴스크 6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탠드 램프 와츠 7 경쾌한 컬러 라인업 쿠션 키타바니포니



봄의 컬러를 입은 모듈러 공간박스 수납장 DIY

올 봄 삼화페인트 오진수 사장의 집무실이 미니말한 모듈러 공간박스 수납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구성원 모두가 직접 페인팅한 공간박스 수납장은 개별로 한 개씩 분리되어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과 사무용품 등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 아이템이다.



HOW TO _ 1 가능한 단면이 평평한 공간박스를 준비한다. 표면이 매끈하지 않은 경우, 사포로 샌딩해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2 리폼할 공간박스 표면에 울트라젯소를 칠해준다. 3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피크닉 민트 컬러로 공간박스 안쪽부터 외부까지 페인팅한다. 4 물러가 잘 닿지 않는 구석은 붓을 이용해 페인팅한다. 이외에도 먼저린, 내추럴 옐로우 그린 등 좋아하는 컬러로 공간박스 여러 개를 페인팅한다. **AFTER** _ 나만의 개성과 콘셉트를 따라 공간박스들을 원하는 형태로 배치해준다. 각종 책과 사무용품 등을 정리하고 나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공간박스 완성.



Color Magazine vol.32

2018 Spring Samhwa Interior Color Package

새로운 시작의 계절, 봄. 새싹이 움트듯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봄을 맞아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2018 Spring, Samhwa Interior Color Package'를 준비했다. 서로 다른 스토리로 봄을 열어가는 '신혼부부, 새 학기의 자녀, 직장인'을 위해 '꿈, 여행, 창의력, 심, 편안함' 등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컬러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2018 Spring
Interior
Color Package

신혼부부를 위한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컨셉트 일상 속 리조트 같은 공간 키워드 Fancy, Adorable, Fresh, Bright Positive



Package 1 Rose Blush

화사한 봄꽃이 만개하듯 브라이드 컬러들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보자. 핑크빛, 살구빛을 담은 로즈 블러쉬(Rose Blush), 상큼한 레몬라임 빛깔의 키위 플레시(Kiwi Flesh), 파란 봄하늘을 닮은 발룬 블루(Balloon Blue) 컬러는 희망 가득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다. 플랜트, 패브릭의 세서미 리프(Sesame Leaf), 스톤 그레이(Stone Gray) 컬러는 생명력과 모던함을 더해준다.



STONE GRAY
SH S 3500-N



BALLOON BLUE
SH S 1060-R90B



KIWI FLESH
SH S 1060-G80Y



SESAME LEAF
SH S 5030-G30Y



Package 2 Strawberry Milk

부드러운 우유빛 핑크 스트로베리 밀크(Strawberry Milk), 새하얀 베딩의 쾌적함이 느껴지는 밀크 화이트(Milk White), 프리지아 향을 담은 듯한 허니 토파즈(Honey Topaz) 컬러로 아침을 더욱 상쾌하게 시작해보자. 그레이, 블랙과 함께 밀리터리 캠프(Military Camp) 컬러가 여성스러운 무드와 함께 균형을 이룬다.



STRAWBERRY MILK
SH S 0530-R20B



MILK WHITE
SH S 0300-N



WOLF GRAY
SH S 3502-R



HONEY TOPAZ
SH S 1070-Y10R



MILITARY CAMP
SH S 6020-G70Y



Package 3 Light Pistachio

신혼여행의 즐거운 시간과 기분을 유지시켜줄 트로피컬 무드에 도전해보자. 라이트 피스타치오(Light Pistachio), 아프리카 가든(African Garden) 컬러의 벽면 페인팅, 대형액자, 월페이퍼, 플랜트 등으로 이국적인 싱그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 스위트 슈거(Sweet Sugar) 컬러의 쿠션, 러그로 트렌디한 감성을 더해주고, 티 블랙(Teal Black) 컬러의 패턴은 휴양지 느낌을 더해준다.



LIGHT PISTACHIO
SH S 1010-G30Y



AFRICAN GARDEN
SH S 6020-B90G



SLATE BLUE
SH S 5502-B



TEAL BLACK
SH S 7502-B



SWEET SUGAR
SH S 1010-R30B

2018 Spring
Interior
Color Package

새 학기 자녀를 위한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콘셉트 꿈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 키워드 Joy, Creative, New, Start, Sweet Dream



Package 1 Primrose Garden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컬러를 원 포인트로 활용해보자. 프림로즈 가든(Primrose Garden) 컬러는 설렘, 새로움, 신기함을 더욱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오닉스 블랙(Onyx Black) 컬러는 브라이드 컬러들과의 콘트라스트로 페니처의 프레임을 강조하여 더욱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SNOW WHITE
SH S 0500-N



PASTEL PINK
SH S 0520-R20B



TENDER BLUE
SH S 2010-B10G



ONYX BLACK
SH S 9000-N



Package 2 Blue Opal

블루 오팔(Blue Opal) 컬러와 자동차 모티브 디자인의 침대 하나만으로도 자유로운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다. 버밀리언(Vermillion), 프레시 레몬(Fresh Lemon) 컬러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표현해준다. 남아방의 경우, 블랙, 엘리펀트 그레이(Elephant Gray), 시나몬 시럽(Cinnamon Syrup) 컬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성장해가는 인격체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BLUE OPAL
SH S 3050-B



ELEPHANT GRAY
SH S 3502-B



FRESH LEMON
SH S 0570-Y



SAMHWA SIGNATURE RED
SH S 1085-Y90R



CINNAMON SYRUP
SH S 7020-Y80R



SNOW WHITE
SH S 0500-N



BUBBLE TEA
SH S 1510-Y70R



PINK RIBBON
SH S 1040-R20B



NATURAL YELLOWGREEN
SH S 1050-G50Y



MORNING GLORY
SH S 1030-B60G



Package 3 Snow White

화이트 배경에는 어떤 파스텔 컬러들이 더해지더라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드가 형성된다. 포근한 편안함이 느껴지는 버블 티(Bubble Tea), 기분이 상쾌해지는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 새싹을 담은 내추럴 옐로우그린(Natural Yellowgreen), 아이들의 깜찍한 표정과 어울리는 핑크 리본(Pink Ribbon) 컬러들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완성해보자.

2018 Spring
Interior
Color Package

번아웃 직장인을 위한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콘셉트 계절에 상관 없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공간 키워드 Calm, Quiet, Rest, Mild, Monotonous



Package 1 Lightening Gray

초여름 바다의 고운 모래와 잔파도, 미풍이 느껴지는 라이트닝 그레이(Lightening Gray), 윈터 스페이스(Winter Scape), 그레이 블루(Gray Blue) 컬러들로 일상에서 수딩(Soothing) 효과를 누리보자. 특히 오프화이트 컬러들을 톤인톤 배색으로 활용하면 이른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 차분하면서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MILK WHITE
SH 5 0300-N



WINTER SCAPE
SH 5 1005-R90B



GRAY BLUE
SH 5 2020-R90B



SLATE BLUE
SH 5 5502-B



Package 2 Silver Gray

외부의 넘쳐나는 자극들에 피로해진 이들에게는 무채색으로 연출한 모던한 편안함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스노우 화이트(Snow White)에서 실버 그레이(Silver Gray), 크롬 그레이(Chrome Gray), 틸 블랙(Teal Black) 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도의 그레이 컬러를 자유자재로 조합해보자. 명도가 높은 그레이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좋다.



SILVER GRAY
SH 5 2500-N



SNOW WHITE
SH 5 0500-N



CHROME GRAY
SH 5 4502-Y



TEAL BLACK
SH 5 7502-B



RUSSET ORANGE
SH 5 6020-Y60R



SMOOTH BROWN
SH 5 4020-Y70R



SOFT GLOW
SH 5 0507-Y80R



PLATINUM GRAY
SH 5 3000-N



NORWEGIAN WINTER
SH 5 3010-B70G



DOLPHIN GRAY
SH 5 6010-B70G

Package 3 Smooth Brown

내추럴한 무드로 기분 좋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보자. 트렌디한 감성을 위해 자연의 컬러를 소프트 톤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머디(Muddy)한 점토를 연상시키는 스무스 브라운(Smooth Brown), 풀내음이 어울리는 노르웨이안 윈터(Norwegian Winter), 돌핀 그레이(Dolphin Gray) 컬러는 미드톤 컬러 구성으로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함을 준다.

넓은 아파트의 화려한 변신!

소프트한 컬러가 돋보이는 모라주공3단지



우리는 종종 넓은 아파트가 컬러를 만나 새롭게 변신한 모습에 감탄하곤 한다. 컬러로 새롭게 태어난 아파트는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 밝고 화사해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주거 환경 변화의 중심에서 컬러와 디자인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삼화페인트 색채시뮬레이션 파트는 매년 전국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를 'CS Color Wheel'과 'NCS Triangl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컬러와 디자인 지원 시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페인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파트 재도장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컬러와 디자인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현장 또한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첫 번째 우수 현장인 부산광역시 모라주공3단지의 사례를 알아본다.

부산광역시 모라주공3단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 남흥건설주식회사,
학산산업개발주식회사 / 1992.12. 입주 / 총 2,385세대 / 총 14개동 / 16층 /
판상형 2017년 재도장



모라주공3단지의 컬러 디자인 계획

부산광역시 모라주공3단지는 비교적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이다. 이 현장은 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지를 크게 블루존과 그린존으로 구성,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 디자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블루존 컬러는 고명도의 무채색을 기초 컬러로 배색하고, 중·저채도의 B10G~B40G 컬러를 강조색으로 배색하여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다. 그린존 컬러는 저채도의 G50Y~G90Y 컬러를 강조색으로 배색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측벽 한쪽 수직면에 규칙적으로 면배색한 모던한 픽셀 패턴 이미지는 수평면을 활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했으며,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정배면의 강조패턴을 계획했다(2017년 LH 디자인 매뉴얼 컬러 적용). 또한, 이 현장은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 과거 아파트 재도장 시 사용이 적었던 R50~R90B(파란 기미를 띠는 보라 계열), B~B40G(파란 기미를 띠는 청록 계열), B50G~B90G(초록 기미를 띠는 청록 계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세련되고 현대적인 신축 아파트의 느낌을 재현하고자 주·보조군의 무채색 사용으로 강조 컬러를 돋보이게 했다. 전국 곳곳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아파트 재도장 현장은 나날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삼화페인트 색채시뮬레이션 파트는 앞으로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가진 아파트 현장들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달하며 아파트 재도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S





뮤지컬로 만나는 웹툰 <무한동력>

웹툰 연재 10주년을 맞은 <무한동력>이 2015년 초연 이후 3년 만에 뮤지컬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무한동력>은 취업 준비생, 공무원 준비생, 피자 배달가, 아르바이트생, 고3 수험생, 사춘기 소년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저마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 ~ 2018년 07월 01일
장소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초대일 2018년 6월 5~6일



**지구, 인간, 동물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

국내 사진전 최대 관람인원 기록을 세운 바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전'이 특별전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 Photo Ark: 동물들을 위한 방주>에서는 친근한 동물들을 비롯해 흔히 만날 수 없었던 또는 지금까지 존재 자체도 몰랐던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기간 ~ 2018년 05월 27일
장소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초대일 전시 기간과 동일



**국립 이스라엘박물관 컬렉션
샤갈 러브 앤 라이프전**

러시아 출신 화가 '샤갈'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총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립 이스라엘 박물관이 기획한 전시로, 샤갈과 그의 딸 '이다'가 직접 기증하거나 세계 각지의 후원자들로부터 기증받은 샤갈 작품 중 150여 점을 소개한다.

기간 2018년 06월 05일 ~ 09월 26일
장소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삼화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뮤지컬 <무한동력>, 전시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의 티켓(1인 2장)을 선물합니다.
응모는 5월 10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입니다.
* 응모방법 : <speople@samhwa.com>로 신청해 주세요.

S QUIZ

사진과 관계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보세요. (예 : A-①, B-②)
정답을 speople@samhwa.com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시각장애 아동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 '인비저블 투 비저블'의 일환으로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구광명학교 컬러 계획 및 도색 지원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 '청주맹학교 도서관'을 새롭게 바꾸었다.



화사한 봄꽃이 만개하듯 브라이드 컬러들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보자. 핑크빛, 살구빛을 담은 로즈 블러쉬(Rose Blush), 상큼한 레몬라임 빛깔의 키위 플레시(Kiwi Fresh), 피란봄하늘을 담은 balloon 블루(Balloon Blue) 컬러는 희망 가득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당첨자

김건숙 서울시 중구 / 김효선 서울시 동대문구 / 안미경 서울시 성북구 / 유귀계 서울시 은평구 / 윤희명 충청남도 태안군 / 이연성 경상북도 포항시 / 전한승 경상북도 경주시 / 정대욱 경기도 수원시 / 차한결 서울시 서초구 / 현희경 강원도 원주시
*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A - ① (그라운드드 달라이트) B - ② (Analog Gray)

삼화엔파플 사내기자단

연구혁신그룹	김필영 책임연구원	해외사업팀	김병준 과장
마켓기획팀	박철희 과장	컬러디자인센터	이미리 대리
재무팀	김현정 과장	SM2-네트웍스	허현아 대리

SAMHWA